

챗GPT와 와인을 즐기는법… 그래도 건배는 사람과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187

영국의 수제 맥주업체 앳워터 브루잉 (Atwater Brewing)이 ‘인공지능(AI) IPA’라는 새로운 맥주를 선보였다. 이슈가 된 것은 불인 이름처럼 AI가 고안한 레시피로 만들어서다. IPA는 맥주의 한 종류로 알코올 도수가 높고, 강한 쓴 맛과 아로마의 향이 특징이다.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앳워터 브루잉의 사장인 케이티 맥브래디가 대표 AI 채팅로봇(챗봇)인 챗GPT에게 “IPA 레시피를 써줘(write me an IPA recipe)”라고 했더니 미국산 홉에 유럽산 홉까지 섞어 알코올 도수 6.9%의 IPA를 만들어냈다. 집에서나 만들 양이 길래 양조 시스템에 맞게 레시피를 20배팅로 확장해 달라고 했고, 실제 맥주 생산까지 이어졌다.

맥주보다 수십 배는 더 복잡하겠지만 AI가 양조한 와인을 맛볼 날도 멀지 않았을 터. 오늘의 와인 테이블에 같이 앉



프랑스 상파뉴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아름다운 여성. 에드워드 호퍼 스타일(왼쪽), 사막마라톤 결승선에 들어온 뒤 와인을 마시는 여성 마라토너. 팝아트 스타일로(가운데), 별이 빛나는 밤에 와인 한 잔, 반 고흐 화풍으로.



/달리2

을 이는 바로 챗GPT다.

다음은 챗GPT와의 대화다. 일부 요약이 있지만 대부분 그대로 옮겼다.

먼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와인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안녕! 반가워요. 나는 AI 모델이라 와인과 그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 지식이 있어요. 당신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해볼테니 자유롭게 물어봐요.”

당신이 만든 IPA 레시피를 봤어요. 와인 레시피도 줄 수 있나요. 카버네 소비뇽 품종으로 만든 레드와인데 과일 향이 풍부하면 좋겠고, 스테이크와 잘

어울려야 해요.

“난 AI라 와인 레시피를 새로 만들어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카버네 소비뇽으로 와인을 양조하는 대략적인 방법은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것을 활용해 당신의 취향에 맞게 활용해보요. 와인은 최종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아주 많아요. 당신이 원하는 와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연구와 실험이에요.”

한국에서 유명한 와인인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이 어떤 맛인지 알려줘요. “빈티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풀바디 와인으로 잘 익은 검은 과실과 바닐라, 오크향도 느낄 수 있어요. 타닌은 단단하지만 산도가 받쳐줘서 균형감이 좋다고 느낄거예요. 붉은 육류와 스테이크, 진한 치즈 등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울려요.”

마음에 드는 와인이에요. 비슷한 와인 3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당연하죠. 카테나 자파타 카버네 소비뇽, 에라주리즈 맥스 리제르바 카버네 소비뇽이에요.”

사람들이 와인에 대해 당신에게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은 뭐예요.

“첫번째는 와인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두번째는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의 차이점. 세번째는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에 대해 물었어요.”

대화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AI로 로망을 실현할 시간이다.

몸은 주방에서 아이가 깔세라 숨죽여 마시는 와인 한 잔이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프랑스의 상파뉴다. 그러니 AI에게 첫번째 부탁할 그림은 프랑스 상파뉴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아름다운 여성. 화풍은 에드워드 호퍼 스타일로 주문했다.

다음은 과거로 돌아가 와인 한 잔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을 재현해달라고 했다. 힘겹게 사막마라톤의 결승 지점에 골인한 후 와인 한 잔을 마시는 여성 마라토너다. 지구 반 바퀴는 돌아 참가했던 그 순간 와인 한 잔만 있었다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을텐데 말이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와인 라벨 붙이기가 가능할 때를 대비해 팝아트 스타일로 그림을 완성했다.

마무리는 별이 빛나는 밤, 별처럼 빛나는 샴페인 한 잔이다. 당연히 화풍은 빈센트 반 고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사람들은 왜 모두 분노에 차 있는가

한때 ‘댓글 읽기’가 취미인 적이 있었다. 한국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의 골목길 예찬론에 “오늘 모국어를 잃어 0개국어 구사자가 됐습니다…”라고 한탄한 댓글, ‘적군을 속하려면 아군 먼저 속여라’가 사자성어로 뭐냐고 묻자 ‘오늘일기’라고 답한 글 등이 기억에 남는다. 그러나 요즈음은 댓글을 전혀 보지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 댓글창이 전쟁터로 변해 재밌는 이야기는 없고 서로 헐뜯고 욕하는 말들만 난무해서다.

‘오색 찬란 실패담’을 탐독하다가 왜 세상에 화가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지 깨닫게 됐다. 도합 3시간(꽃은 날씨엔 최대 5시간30분)의 출퇴근길로 인해 번아웃을 겪게 된 저자가 퇴사 후 180도 달라진 자신의 삶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분노의 원천이 어디인지 알게 된다.

회사원 시절 저자는 모든 것을 잠시도 참아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단골 카페 알바생이 불친절하거나 배달 직원이 예상 도착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 택배가 잘못 왔을 때, 직장 동료가 어제 물어본 걸 오늘 또 물어볼 때, 내고 내도 자꾸 더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할 때와 같은 일상적인 순간에서도 자주 속에서 천룡이 났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왜 일을 이따위로 하지?’, ‘왜 실수한 만큼 사과하지 않지?’, ‘왜 굳이 여러 번 대답하게 만들지?’, ‘왜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비싼 거지?’ 따위를 궁리하느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단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그는 결국 회사



오색 찬란 실패담

정지음 지음/알에이치코리아(RHK)

를 관두고, 분노가 치미는 삶과 결별하게 된다. 퇴사 후 왕복 3시간이 넘는 통근 과정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그의 건강은 놀랍도록 좋아진다. 좋은 일 하나 없이도 히죽히죽웃는 습관이 들었고, 항상 웃게 된 뒤에는 화가 나 마땅한 상황에도 화가 나지 않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저자는 “뭔가 이상할 때마다 ‘어찌됐어…’라고 중얼거리며 머리를 몇 번 득득 긁으면 의문이 사라졌다. 언젠가부터는 타인에게 갖고리즘 날카로운 물음표를 들이대는 일이 더 어색하게 느껴졌다”면서 “참을성의 역치가 높아졌 다기보단, 참을성이 필요한 사건들이 내게서 사라진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은가 혹은 사람들은 왜 모두 분노에 차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232쪽, 1만6500원.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기후

노광준 지음/루아크

기후위기는 이제 남 얘기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걸까. 책에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소중히 도전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가 소개된다. 무경운 농법을 시도한 70대 농부, 공연을 위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스태프 숫자만큼 나무를 심는 가수, ‘지구의 날’을 맞아 10분간의 어둠 체

힘으로 작은 실천에 참여하는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 기후라는 이름의 렌즈를 끼면 세상이 전과는 다르게 보인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기후 초심자’들을 위한 안내서.



236쪽, 1만5500원.

불편하게 사는 게 당연하진 않습니다

백순심 지음/설렘(SEOLREM)

달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쟁에서 이기려면 뛰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게 옳은 일일까. 기준값이 정당해지려면 사회는 달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동 수단과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는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여기서 ‘누구나’에 사회적 약자가 빠져 있다고 책은 짚는다. ‘투표용지, 키오스크, 셀프 주유소, 종이 빨대…’ 사람들의 일상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지만 장애인에게는 불편함과 난처함을 겪게 하는 골칫덩어리이기도 하다.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들은 어딘가 부족한 존재가 아닌, 있는 그 자체로의 존재가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188쪽, 1만6000원.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바츨라프 스미일 지음/강주현 옮김/김영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도시화와 기계화로 인해 사회의 기반이 되는 식품, 원자재, 상품 등이 어떻게 생산되고 이동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경제사학자이자 환경과학자인 저자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사람들이 채팅형 인공지능에 대한 장밋빛 기대나 기후위기로 세계가 종말할 것이라 비통한 예언에 휘둘린다고 진단한다. 책은 오늘날 인류가 사회 경제 전반을 얼마나 화석연료

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주며 탈탄소화를 위한 단계의 에너지 전환이 현실적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한다. 과학적 통계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밝히는 현대 문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



492쪽, 2만2000원.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푸틴 “시진핑에 가장 지하철 보여줄 것”
▲ 트위터, 감원 사흘 만에 서비스 장애 1만건

/사진 뉴시스



▲ 러시아, 전시 검열법 강화…군 모욕시 징역 15년
▲ 틱톡,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1일 1시간

/사진 뉴시스

▲ 일본, 생활보호 대상자 3년 연속 증가
▲ 美 아시아계 여성임금, 백인보다 높다